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행일 2026. 11. 1.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26 Vol.17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 출신국은 넓어지고 중도탈락은 줄었다

손윤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2017~2025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일반·산업대학에서 70.4%, 전문대학에서 504.6% 증가하여, 전문대학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짐. 일반·산업대학은 중국 중심의 출신국 구성이 완화된 반면, 전문대학은 베트남 출신 비중이 2025년 60.0%까지 높아져, 대학 유형에 따라 출신국 구성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
- 2023~2025년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일반·산업대학에서 6.85%에서 5.60%로, 전문대학에서 10.02%에서 7.23%로 하락함. 그러나 수도권 일반·산업대학에서는 2025년 중도탈락률이 상승하고, 강원권 전문대학에서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등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 대학 유형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학업 지속 지원이 요구됨.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조기 달성한 현 시점,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규모뿐 아니라 출신국 구성, 지역별 분포와 학업 지속 양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2017~2025년 유학생 규모와 출신국 구성의 변화, 2025년 권역별 분포, 2023~2025년 공시된 중도탈락률을 분석하였다. 두 대학 유형 모두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출신국 구성과 지역별 분포는 차이를 보였다. 중도탈락률도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수도권 일반·산업대학의 상승과 강원권 전문대학의 높은 수준 등 권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와 함께 대학 유형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학업 지속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들어가며

지난 10여 년 사이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풍경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존재감이다. 교육부는 2023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하였고, 2026년 약 307,000명으로 유치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교육부, 2026.9.). 이러한 양적 확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대학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의 결과물이 종합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유학생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화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느 나라에서 와서 어느 지역의 대학에 다니며, 학업을 이어가는 양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이를 위해 이번 호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학생 수와 출신국 구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2025년 기준으로 권역별 분포를 비교한다. 이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학업 지속성을 진단하고, 이러한 중도 탈락률이 대학 유형과 권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팽창, 그리고 출신국의 다양화

외국인 유학생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지난 8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일반·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모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90,095명에서 2025년 153,477명으로 63,382명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문대학 재학 유학생은 6,163명에서 37,260명으로 31,097명 늘었다. 증가율은 각각 70.4%와 504.6%로, 전문대학의 유학생 규모는 2017년의 약 6배가 되었다.

증가의 흐름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산업대학은 2019년 111,764명에서 2021년 98,019명으로 소폭 감소한 후 2023년 113,600명으로 회복한 후 2025년에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전문대학은 2017~2025년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3~2025년에는 일반·산업대학에서의 증가 폭이 35.1%인 것과 달리, 전문대학에서는 117.5% 증가하여 최근 들어 전문대학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외국인 유학생 재적학생 수 추이(2017~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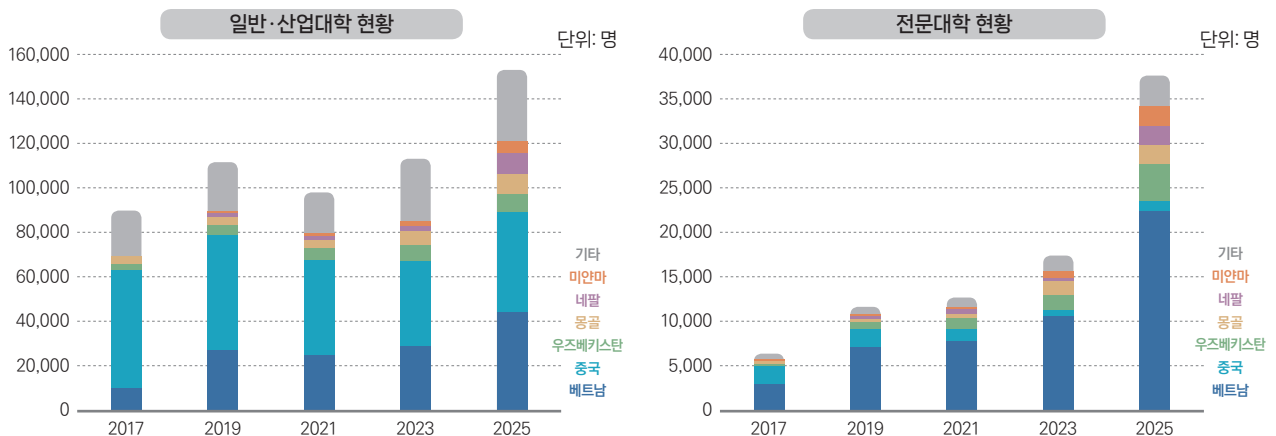
	연도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미얀마	기타	전체
일반·산업 대학	2017	9,856	53,943	2,056	3,243	227	226	20,544	90,095
	2019	27,404	51,426	5,199	4,177	863	341	22,354	111,764
	2021	24,715	42,990	5,742	3,475	1,567	412	19,118	98,019
	2023	28,471	39,233	7,100	6,511	1,786	2,057	28,442	113,600
	2025	44,082	44,804	8,254	9,457	8,879	5,380	32,621	153,477
전문 대학	2017	2,766	2,121	182	396	15	32	651	6,163
	2019	7,037	1,871	739	366	394	178	899	11,484
	2021	7,657	1,343	1,214	378	622	240	1,025	12,479
	2023	10,426	805	1,638	1,497	325	828	1,610	17,129
	2025	22,342	983	4,048	2,147	2,315	2,063	3,362	37,26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교별×국가별 외국 학생 자료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 구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지난 8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 구성도 달라졌다. 일반·산업대학에서 중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53,943명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변동을 보이며 감소하여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9.2%(44,804명)로

그림 1 외국인 유학생 재적학생 수 추이(2017~2025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교별×국가별 외국 학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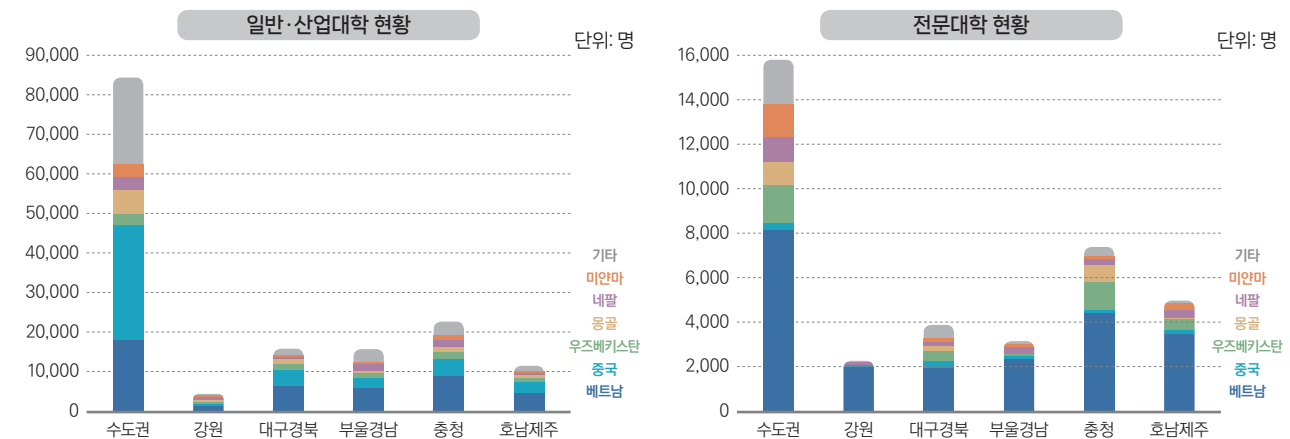
감소하였다. 반면 베트남 출신은 9,856명에서 44,082명으로 규모가 커졌고, 비중도 10.9%에서 28.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 학생 수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우즈베키스탄·몽골·네팔·미얀마 출신도 증가하였다. 일반·산업대학에서 이들 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4%에서 2025년 20.8%로 높아졌다. 특히 네팔 출신은 2023년 1,786명에서 2025년 8,879명으로, 미얀마 출신은 2,057명에서 5,38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특정 국가에 쏠려있던 외국인 유학생의 구성이 개선되면서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고르게 유입되는 흐름을 보인다.

전문대학에서는 베트남 출신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졌다. 베트남 출신은 2017년 2,766명에서 2025년 22,342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유학생 중 비중은 44.9%에서 6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 출신 비중은 34.4%(2,121명)에서 2.6%(983명)로 낮아졌다. 우즈베키스탄·몽골·네팔·미얀마 출신을 합한 비중도 10.1%에서 28.4%로 증가하여, 이들 네 국가의 비중 확대도 함께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은 어떤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외국인 유학생이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는지를 보면 일반·산업대학, 전문대학 간 차이가 분명하다.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일반·산업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84,229명으로 전체의 55% 안팎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충청권 22,491명(14.7%), 부울경남권 15,683명(10.2%), 대구경북권 15,471명(10.1%), 호남제주권 11,401명(7.4%), 강원 4,202명(2.7%) 순이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780명으로 42.4%에 머물고, 충청권(7,335명, 19.7%), 호남제주권(4,958명, 13.3%) 등 비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그림 2 권역별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비교(2025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교별×국가별 외국 학생 자료

비중은 전문대학의 유학생 급증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학생 총원과 맞물려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출신국 구성도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산업대학의 수도권 대학은 중국 출신이 29,344명, 베트남 출신이 17,876명, 그 밖의 국가 출신이 37,009명으로 여러 나라의 유학생이 고루 섞여 있지만, 비수도권 다섯 권역은 모두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이 1위이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많다. 전문대학은 여섯 권역 모두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이 8,157명(51.6%) 절반 수준을 보이지만, 강원은 유학생 2,230명 가운데 87.3%(1,946명), 부울경남권은 76.2%(2,348명), 호남제주권은 69.7%(3,455명)이 베트남 학생이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일반·산업대학보다 전문대학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셈이다.

감소 추세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 지역 간 편차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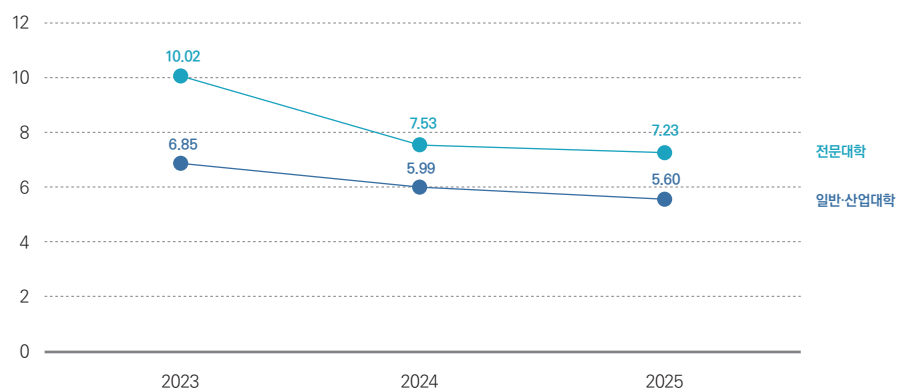
중도탈락률, 일반·산업대학, 전문대학 모두에서 낮아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이 학업을 끝까지 이어가는지도 중요하다. 중도탈락률은 재적학생 가운데 자퇴·미등록·미복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로,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일반·산업대학의 경우 2023년 6.85%에서 2024년 5.99%, 2025년 5.60%로 1.25%p 낮아졌고, 전문대학은 2023년 10.02%에서 2024년 7.53%, 2025년 7.23%로 2.79%p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학제 간 격차가 2023년 3.17%p에서 2025년 1.63%p로 좁혀졌다.

이 기간이 유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탈락률 하락의 의미는 작지 않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불법체류율·중도탈락 등을 점검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비자 제재를 강화해 온 정책과, 한국어 교육·생활 지원·진로 상담 등 대학 현장의 유학생 관리 역량 향상이 함께 작용함에 따라 중도탈락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추이

단위: %



더불어,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일반·산업대학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대학의 전체(내국인 및 외국인 포함) 중도탈락률도 약 9.0% 수준(2025년 기준)으로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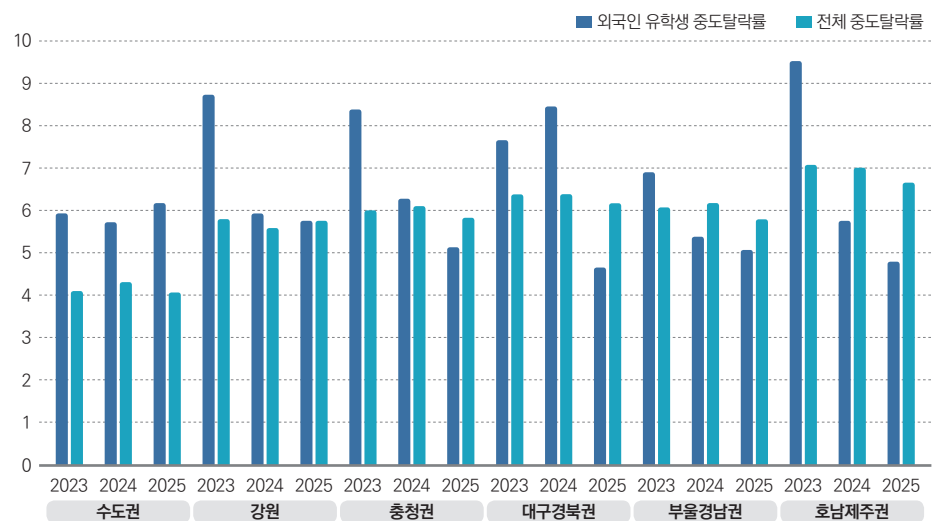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중도 탈락률 개선

일반·산업대학의 권역별 중도탈락률 비교는 ‘비수도권의 개선, 수도권의 정체’로 요약된다([그림 4] 참조). 2023년에는 여섯 권역 모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전체 학생 기준의 중도 탈락률보다 높았다. 호남제주권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9.5% 대 전체 7.0%, 강원은 8.7% 대 5.6%, 충청권은 8.4% 대 6.0%로 격차가 2~3%p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5년에는 호남제주권 4.8%, 대구경북권 4.6%, 부울경남권 5.1%, 충청권 5.1%로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전체 학생(5.8~6.6%)보다 오히려 낮아졌고, 강원도 5.7%로 전체 학생(5.7%)과 중도탈락률이 같은 수준을 보였다. 호남제주권은 2년 사이 4.7%p가 낮아져 하락 폭이 가장 크다.

한편 수도권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수도권 일반·산업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2023년 5.9%, 2024년 5.7%, 2025년 6.2%로, 중도탈락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2025년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4% 안팎으로 가장 낮은 수도권에서 외국인 유학생만 높은 수준이 3년 내내 이어진 것이다. 2025년 일반·산업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전체 학생 기준의 중도탈락률보다 높은 권역은 수도권뿐이며,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추이(일반·산업대학, 2023~2025년)

단위: %



주: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학위과정, 교육과정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을 포함하였으며, 전체 중도탈락률은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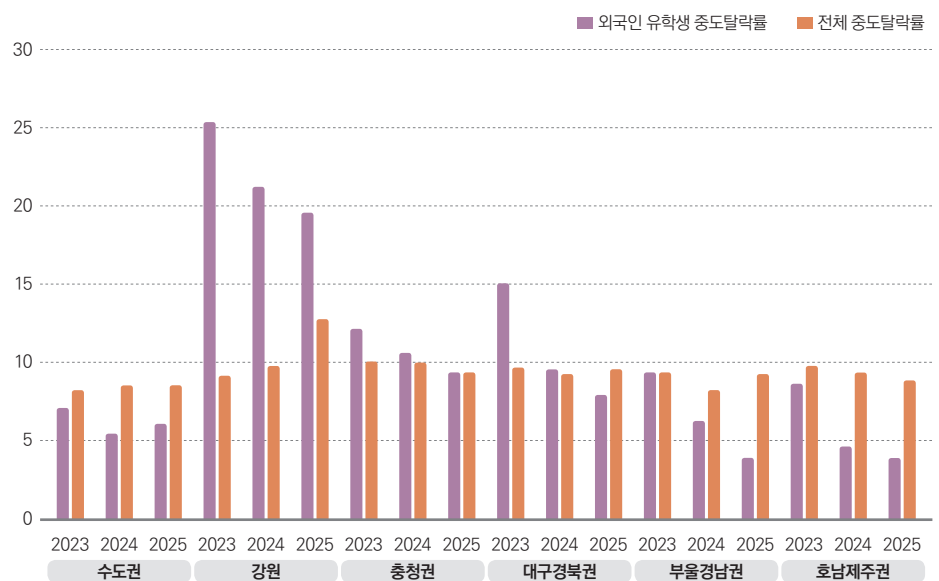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전문대학은 개선 폭이 더 크지만 권역 간 편차도 더 크다. 부울경남권은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23년 9.3%에서 2025년 3.9%로, 호남제주권은 8.6%에서 3.9%로, 대구경북권은 15.1%에서 7.9%로 낮아져, 세 권역 모두 2025년 전체 학생(8.9~9.6%) 중도탈락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충청권은 12.1%에서 9.3%로 낮아져 전체 학생의 중도탈락률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고, 수도권은 5.4~7.1%로 3년 내내 전체 학생(8.2~8.5%)의 중도탈락률보다 낮았다.

한편, 강원권 전문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2023년 25.2%에서 2025년 19.5%로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수준이고, 전체 학생(12.7%) 중도탈락률의 1.5배가 넘는 수준에 이른다. 다만 강원권 전문대학의 유학생은 약 2천 2백 명으로 규모가 작고 베트남 학생이 85% 안팎을 차지해, 소수 대학과 특정 국가 유학생의 상황이 권역 전체 수치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특정 국가 의존'과 더불어 '높은 중도탈락'이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유학생 유치의 규모와 학업 지속이 독립적으로 갈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림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추이(전문대학, 2023~2025년)

단위: %



주: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학위과정, 교육과정공동운영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을 포함하였으며, 전체 중도탈락률은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함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나카며

지난 8년 동안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두 배로 늘었고, 출신국의 비중은 중국 의존에서 베트남·우즈베키스탄·몽골·네팔·미얀마로 넓어졌으며, 학업을 중단하는 유학생의 비율은 낮아졌다.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나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데이터는 두 가지 과제도 보여 준다. 첫째, 여전히 다양화의 과제를

보여준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으나, 여전히 상위 3개국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특정 국가 의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의 관리이다. 2023년에는 비수도권에서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였다면 2025년에는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모인 수도권 일반·산업대학에서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전체 학생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강원권 전문대학처럼 20% 안팎에 머무는 곳도 있다. 지역에 따라 중도탈락률 간 편차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속성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지원이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출신국 다변화와 중도탈락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살펴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에서는 학교별·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자료를,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서는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대학별 세부 현황은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기를 권한다. 

참고자료

- 교육부(2026.9).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